

# 휴스턴, 창단 55년만의 첫 우승

### 다저스 꺾고 월드시리즈 제패... 조지 스프링어 WS 최초 4경기 연속 홈런 기록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LA 다저스를 꺾고 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

휴스턴은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2017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5-1로 승리했다.

1962년 창단한 휴스턴은 무려 55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휴스턴 투타자 조지 스프링어는 또 다시 홈런포를 터뜨렸다.

월드시리즈 최초로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5개를 몰아쳤다. 한 시즌 월드시리즈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다.

스프링어는 3-0으로 앞선 2회초 2사 3루에서 다저스 선발 다르빗슈 유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려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에 랭크된 다저스는 1988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7차전에서 다르빗슈의 난조로 고개를 떨쳤다.

휴스턴은 1회초 스프링어의 2루타로 기회를 만들었다. 곧바로 알렉스 브레그먼이 1루수 앞 땅볼을 쳤다.

그러나 휴스턴은 다저스 1루수 코디 벨린저의 송구 실책을 틈타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2루주자 브레그먼은 3루 도루에 성공한 후 호세 알투베의 1루수 앞 땅볼로 1점을 추가했다.

휴스턴은 2회 선두타자 브라이언 맥캔의 볼넷과 마윈 곤잘레스의 2루타



조지 스프링어(28·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2회초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등으로 1사 2, 3루 찬스를 잡았다.

이후 랜스 맥컬러스가 2루수 앞 땅볼로 맥캔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스프링어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5-0의 리드를 잡았다.

다저스는 3회부터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투입했다.

커쇼는 4이닝 무실점 호투로 이름값을 했다.

그러나 다저스 타선은 터지지 않았

다. 6회말 안드레 이터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득점권 상황마다 타선은 침묵했다.

다저스 선발 다르빗슈는 1%이닝 3피안타(1피홈런) 5실점(4자책점)으로 난조를 드러내며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다르빗슈는 월드시리즈 2경기에서 모두 패전투수가 됐다.

/뉴시스

## 이병규, 코치로 친정팀 LG트윈스 복귀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병규(43)가 은퇴 1년 만에 다시 LG 유니폼을 입는다.

LG는 2일 "지난해 은퇴한 이병규 해설위원을 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코치진을 영입할 예정이어서 보직은 미정이다.

이전 2군 캠프에서 유망주를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LG에 입단한 이병규는 일본 진출 3년(2007~2009)을 제외하고 출근 출퇴근 유니폼을 입었다.

KBO리그에서 17시즌 동안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며 골든글러브 외야수 6회, 지명타자 부문 1회를 수상했다.

2005, 2013년 타격왕이다. 1999, 2000, 2001, 2005년에는 안타 1위에 올랐다.

팬투표로만 11차례나 올스타로 선정

됐다. KBO리그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만 38세8개월10일)와 연타석 최다안타(10안타), 그리고 2014년 KBO 통산 4번째 2000안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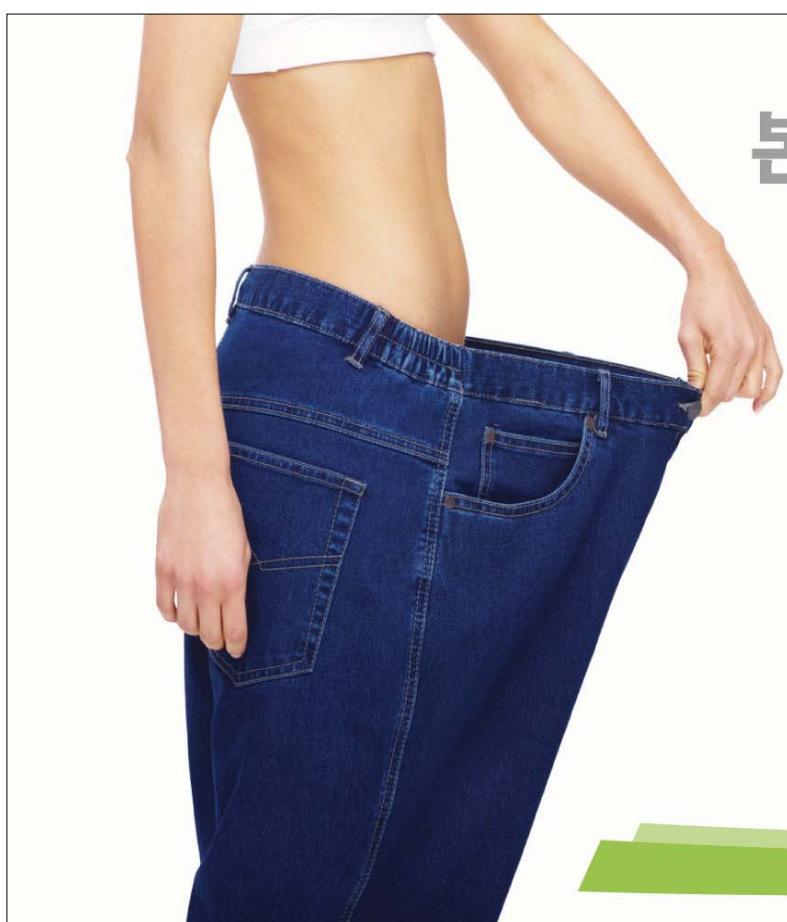
통산 1741경기에 참가해 타율 0.311, 2043안타, 161홈런, 972타점, 992득점, 147도루라는 족적을 남겼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현역에서 물러난 이병규는 올해 7월 잠실구장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등번호 9번은 팀의 영구결번이다.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후배들과 함께 못 다 이룬 한국시리즈 우승의 꿈에 다시 도전한다.

이병규 코치는 "프로 데뷔부터 은퇴까지 몸 담은 LG 트윈스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하게 돼 너무 기쁘다. 우리 LG트윈스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 “에너지 꼭 차있다... 지겹게 보게 해드리겠다”

###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전역 브라운관 복귀 예고



배우 겸 가수 이승기(30)가 팬들에게 전역소감을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승기는 2일 오전 자신의 팬카페에 "여러분 덕분에 다시 돌아온 이승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승기는 "부대 생활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어 어느 순간 강도높은 훈련에 실려오는 제 자신을 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대의 이승기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했던 것 같다"며 "힘들면 쉬어야 하고 지치면 숨을 고르고 가야 하는 하지만 30대 이상기가 특전사 복무하며 느낀 것은 20대의 힘과 지치던 그 순간의 지점이 조금은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으나 조금 더 가서 쉬어도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승기는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전역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역하고 꼭 쉬다가 총전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한다"며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에너지가 짜져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에너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부터 하는 일들은 제가 하고 싶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개인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브라운관을 통해 인사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겹게 보게 해드리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기는 지난달 31일 충북 증평군 소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13공수특전여단 휴포부대에서 만기 전역했다.

/뉴시스

## 영화 '범죄도시' 개봉 한 달 만에 600만명 ↑

영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가 600만 관객을 넘어섰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전날 728개관에서 3153회 상영, 6만4459명(박스오피스 2위)을 끌어모아 개봉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돌파했다(605만1716명, 누적 매출액 495억원).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6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범죄도시' 포함 '택시운전사'(1218만명) '공조'(781만명) '군함도'(659만명) 네 편 뿐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로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3위 '아저씨' 617만명).

'범죄도시'는 강력계 형사와 조선족

조직폭력배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조선족 범죄조직 흑룡파가 가리봉동 일대를 장악해 나가자 강태보가 더 강태보 형사 마석도가 흑룡파 두목 '장천'을 잡기 위해서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마석도 역의 마석도를, 윤계상이 장천을 연기했다. 이밖에도 조재윤·최귀화·임형준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신에 강윤성 감독이 맡았다.

/뉴시스

### 11·12일 'KBO리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야구캠프' 개최

KBO가 11, 12일 가평 무브베이스 볼파크와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2017 KBO리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야구캠프를 개최한다.

KBO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BO 야구캠프는 올해로 3회째다. 각 중계방송사의 KBO리그 해설위원 이병규, 서재용, 장성호, 최희섭 해설위원이 일일감독과 멘토로 참여해 야구 꿈나무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캠프 첫날에는 포지션별 특성화 교육을 하는 야구클리닉, 야구공예 소품을 적고 해설위원들의 조언을 듣는 멘토링과 및 레크리에이션 등 이 준비돼 있다. 둘째날에는 해설위원들이 팀KBO(장성호 이병규)와 팀MIB(서재용 최희섭)로 나눠 유소년 선수들과 야구경기를 한다.

7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KBO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무료.

2017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야구선수와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 리틀 주니어 선수이면 된다. 2팀 20명씩 선착순 40명으로 제한한다.

접수 후 포지션별로 팀이 배정되며 팀 추첨 결과는 8일 개별 통보한다.

/뉴시스